



## 최근의 로마서 연구 동향과 필자의 주석서

박익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로마서를 바울의 조직적인 신학논문으로 이해하고 로마서 본문에서 조직신학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어 로마서가 믿음에 대한 그의 완숙한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듯이, 로마서는 바울이 깊은 사색 중에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을 체계화시키고 자신의 신학을 조직적으로 기술하려던 신학논문이나 책은 더욱 아니다. 물론 이 서신의 전반부에는 복음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전개되어 있고, 후반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행해야 할 생활 지침이 제시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서신은 그리스도교 교리의 “요약서”나 “소논문”이 아니고, 또한 바울 신학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집약시킨 책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 중에서도 중요한 교회관, 성례전, 육체의 부활, 혹은 종말론과 같은 가르침들은 로마서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교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과 특정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분

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해석할 때 ‘서신’으로 로마서의 성격을 규정짓고 해석해야 한다. 서신으로 성격을 규정짓는다면, 서신의 특성상 수신자와 발신자의 상황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가 바울신학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들 가운데 가장 후대의 것으로, 가장 완숙한 신학적 면모를 보인다. 로마서가 바울 편지 스페인 선교목적에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전통적인 입장과는 달리, 로마 교회 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을 해소시켜 하나의 공교회를 목적했다는 데서 서신의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고, 특히 한국 교회의 보수와 진보, 믿음의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성직자들과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의식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는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후 56년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로마교회에 써 보낸 서신에서 비롯된다. 그는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오래전부터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 곳을 서쪽 끝 스페인 선교를 위한 기지로 삼기를 원했었다. 마침 그가 고린도에 동역자들과 잠깐 머물면서 이방교회들이 거두어 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 로마 교회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민족적·종교적, 혹은 정치적·문화적 우월성을 내세우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업신여김으로써 두 그룹 사이의 갈등과 분쟁으로 분열의 위협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사도는 위험한 여행도 잠시 잊은 채 로마교회의 두 그룹에게 자신이 동쪽에서 지금까지 전해 온 하나님의 “복음”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공정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외교적인 수사(修辭)와 예의를 갖춘 서신형식으로 다시 설명하게 되었다. 그 때 그가 써 보낸 서신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 줄여서 『로마서』라고 부르는 책이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집필동기와 로마서 전체에서 개진하고 있는 핵심 논제,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합”이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이 두 그룹을 때때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야만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심지어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자로 다양하게 부르면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고 아무런 차별도 없음을 논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논증한다(2:11).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모두는 한때 다 죄인으로 판명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였으나, 그들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복음을 선포한다.

바울은 로마교회 안의 두 그룹,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민족적·정치적·종교적 우월성에 대한 다툼을 평정하고자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동등성을 입증해 보인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과 피조물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거나 섬기는 데 실패했고(1:18-31),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2:1-29). 그는 해 아래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논증한다.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을(3:21-4:25),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 모두를 똑같이 구원하셨다는 반복하는 논증과정에서 이신칭의를 언급한 것이다.

로마서 1-8장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변증이었다면, 9-11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변증이 된다. 그러므로 두 곳 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차별성과 임의성이 돋보인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 두 민족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나아오게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바울의 소망과 기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더욱 더 이방인을 향한 복음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수단이지 로마서의 주제라고는 할 수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였으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로마서의 논지가, 한국 교회의 안과 밖, 그리고 우리들의 다양한 믿음과 신념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바울의 논의가 오늘날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민족적·문화적·종교적 자만이나 우위성을 강조하는 모든 주장들은 임의적인 것이거나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심지어는 종교들, 종파들, 그리고 믿음의 차이들에 따른 반목과 미움 또한 사라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두 의롭게 된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교회 안과 밖, 교계에서는 소위 잘 믿는다는 정통 보수와 진보진영,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민족적·사회적·경제적·성적인 모든 차별이 종식되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15:5-7) 로마서의 기록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바울은 이처럼 서신을 쓰는 목적에 따라 자신의 신학적 논의를 전개한

다. 그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의 의를 아무런 차별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베푸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복음을 부각시킨다. 그들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신들의 지위나 공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우열을 가늠하거나 서로를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용납하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서신의 인사말(1:1-15)도 서신 전체에 걸쳐 이런 은혜의 신학을 전개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 역할을 한다. 그가 강조하는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단지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는 관념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믿음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논하는 이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실제적인 공동체, 곧 “평화와 사랑의 화해 공동체”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를 새로 읽으려 하는 것은, 그가 제시한 복음은 그 당시의 로마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가 누구이건 무슨 일을 했건 아무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 배경이나 우리의 공적이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심지어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고상한 사상이나 엄정한 법률조항이나 종교적인 짐과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을 추구하면서 어떤 일인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율법의 행함과 같은 종교적 행함, 혹은 자신의 종교적인 공적과 같은 것으로 축소시키거나 변질시키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우리의 유전자적 속성, 곧 유교의 주자학적, 불교의 인과응보적, 그리고 무속의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저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마저도 너무 쉽게 값싼 율법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종교체계로 바꾸기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종교적 의식, 규칙, 교리, 그리고 소위 “높은 곳의 하나님께 이르기”에 필요한 완벽하다는 모든 조치와 장비를 갖춘, “유대교”를 대체할 만한 또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sup>1)</sup>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높은 곳에 계시는” 신(神)을 찾는데, 자신들의 종교적인 각고의 노력으로 신을 만나고 신을 기쁘게 하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마침내는 신을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저런 여러 종교적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그 행동의 성패에 희비가 엇갈리고, 심지어는 “성경”이나 “교리”를 수호한다는 종교적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신을 자기식대로 재단(裁斷)하고 설명하기를 더 좋아하는 나머지 마침내 자기 자신도 종교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인간을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1) 프릿츠 리테나워,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12-14.

“종교” 그 이상의 것이다. 그들이 신을 소유화하고 용신(用神)하려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 맡기고 헌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종교인들도 자신들이 찾은 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버지”라든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수감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시대의 영-열광주의자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유대주의화를 획책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여타의 종교인들처럼 영적인 신비한 체험, 아니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규칙, 교리나 공식들, 그리고 체제와 같은 종교적 챗바퀴가 은총에 우선하고, 행함이 믿음이나 신뢰를 대신하는 그런 종류의 값싼 종교체제로 축소시키기를 좋아한다.

최근에 필자는 로마서에 대한 또 한 권의 주석서를 출간했다. 필자는 이 책이 신실한 독자들에게 읽어야 할 또 다른 주석책으로 남기보다는, 누구나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모든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고 큰 기쁨과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종교적인 허례나 교단의 권위나, 무척 제한적이지만 성직자들의 권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겨우 겨우 잘 해내고 있다고 안도(安堵)하는 무슨 무슨 종교적 모임이나 행사, “너는 뭐고 나는 뭐가 되었다”면서 환호와 꽃다발을 주고받고 박수치는 “종교 놀음”과도 더욱 관계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인들에게 써 보낸 이 서신은 그리스도교가 종교를 뛰어넘는 그 무엇임을 보여 주고, 우리 모두를 더 이상 종교체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 주석서에는 아주 중요한 최근의 신학적 입장이 반영되었다. 원문으

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pistis tou Xristou*”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실 이 속격구절은 해석상의 논의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종교개혁 이후 대부분의 주석서들과 신학자들은 전자의 해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갖는다는 데 대한 거부감과, 둘째, 예수처럼 산다는 것(*imitatio Christi*)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부각되고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점에서 쓰인 주석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번에 필자가 이런 입장의 주석서를 쓴 것이다. 한글 번역 성경들 대부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믿음은 약화되고, 오히려 바울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들의 율법의 행함이나 할례를 주장한 것과 같은 인간적 대안, 곧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만 강조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자의 해석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주석서에는 본문비평에 충실한 원문을 직접 사역해서 기존의 개역개정판본문과 비교해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본문을 주석할 때 신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보다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더 관심 갖고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썼다. 신학적 논의에 관심 갖는 사람들



을 위해서는 각주를 자세히 달고 “신학적 논의”를 따로 제시했으나,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매 단락마다 “결론 및 설교요점”으로 쉽게 본문의 내용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로마서의 목적과 주제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대인과 로마의 이방인, 곧 헬라인들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이 죄인이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변증의 내용과 신앙안내의 내용이 로마서에 들어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존재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고, 교단간의 분열도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를 위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안 먹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선할 수도 많이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엄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한 구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절대적

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를 정죄하며, 편을 가르고 내칠 수가 있겠는가? 모두가 서로를 연민의 정으로 보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즉 그분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예를 돌려보내고 그분의 사랑에 화답하며 그 분의 사랑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2장 23-29절에서 유대인들을 논박했던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바울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바울은 특별히 구체적인 윤리를 주장한 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현실을 늘 강조함으로써 용서받고 은혜를 입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얻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을 잃든지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처럼, 바울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줄 것이다.

**:: 박익수** 감리교신학대학교(Th.B.)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을 나와 미국 남감리교대학교(SMU)의 퍼킨스(Perkins) 신학교(Th.M.)와 드류(Drew)대학교 대학원(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으며, 한국신약학회 회장이다.